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횡설수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횡설수설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횡설수설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횡설수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지껄임.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횡설수설	-	-	-
횡설수설	-	-	-
횡설수설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지껄임.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0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횡설수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지껄임.



횡설수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횡설수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횡설슈설 사전 표기 요약	—	—	—	—	●→	●→
횡설수설 사전 표기 요약	—	—	—	—	●→	●→
횡설슈설 문헌 수록 표기	—	—	—	—	—	●→
橫說豎說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횡설슈설
19세기20세기
- 횡설수설

19세기20세기현재

- 횡설수설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횡설수설, 횡설수설, 횡설수설, 橫說豎說

↳ 횡설수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횡설수설’은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횡설수설’이나 ‘횡설수설’로 나타나고 20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橫說豎說’도 나타난다.

↔ 다른 언어와 한자음

‘횡설수설’은 이전 시기 한자음을 고려한 표기이다.

↘ 소리와 발음의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ㅕ, ㅛ, ㅟ’가 ‘ㅈ, ㅊ, ㅌ, ㅎ’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횡설수설’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횡설수설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횡설수설, 횡설수설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횡설수설, 횡설수설

출처 1896 국한회어 곤:363

용례 01

66 문헌 용례

횡설수설 [橫說豎說]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158

용례 02

66 문헌 용례

횡설수설 [橫說豎說]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횡설수설, 횡설수설, 橫說豎說 외 1종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횡설수설, 횡설수설, 橫說豎說, 횡설수설

출처 1908 철세계 81

용례 03

66 문헌 용례

횡설수설 천산지산 하야 취신키 어렵고

현대어 풀이

횡설수설 천산지산 하야 믿기 어렵고

출처 1909 언문 1:167

용례 04

66 문헌 용례

횡설수설 [橫說豎說]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1 개벽 제13호 80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이와 가튼 橫說豎說로 한동안을 꽤 써들었다

ㄷ ㅅ 현대어 풀이

이와 같은 횡설수설로 한동안을 꽤 떠들었다.

출처 1922 동아일보 12월16일 3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수일 전에 사리원역(沙里院驛)에서 횡설수설 긴 편지를 주인 되는 최 씨에게 붓치고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횡설수설의 보충 설명

‘橫說豎說(횡설수설)’은 한문 문헌에서는 19세기 전에 이미 나타나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ㄷ ㅅ 횡설수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ㄷ ㅅ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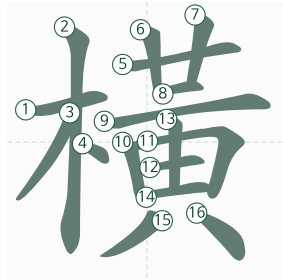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횡설수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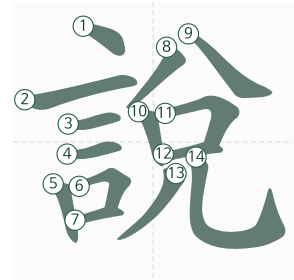
뜻·음 가로 횡
총 16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橫/

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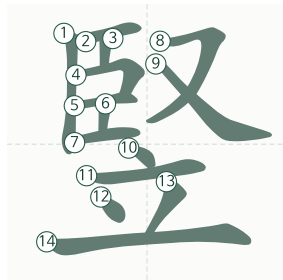
뜻·음 말씀 설 / 달랠 세
총 14획 · 부수 言



hanja.wordrow.kr/한자/說/

豎

뜻·음 세울 수
총 13획 · 부수 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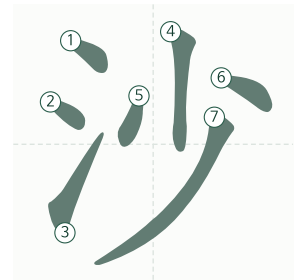


사전 13획 · 획순 그림 14획

hanja.wordrow.kr/한자/豎/

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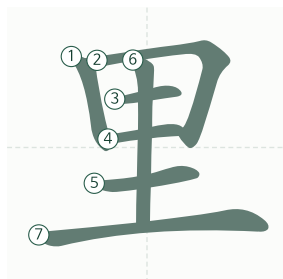
뜻·음 모래 사
총 7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沙/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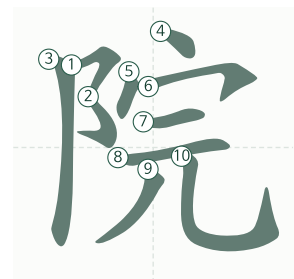
뜻·음 마을 리
총 7획 · 부수 里



hanja.wordrow.kr/한자/里/

院

뜻·음 집 원
총 10획 · 부수 阝



hanja.wordrow.kr/한자/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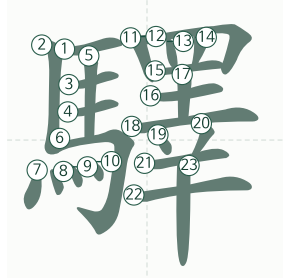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驛

뜻·음 역역

총 23획 · 부수 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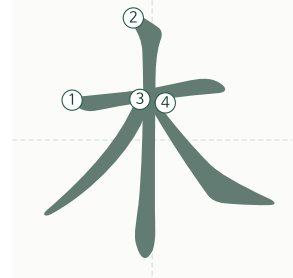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驛/

木

뜻·음 나무 목

총 4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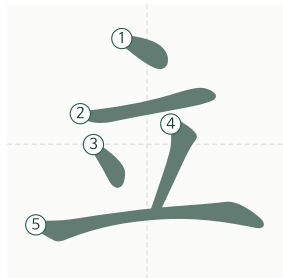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木/

立

뜻·음 설립

총 5획 · 부수 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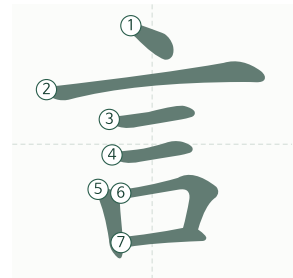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立/

言

뜻·음 말씀 언

총 7획 · 부수 言



hanja.wordrow.kr/한자/言/